

# “독서·사색·사랑 ... 의식 수준 높이면 삶이 달라진다”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강연 개그우먼 조혜련

## 열정적 삶의 원천은 유년의 상처...쉽없이 전진만 고난 속 성공의 덧없음 깨닫고 주변 돌아보게 돼

“의식 수준”을 높이면 삶이 달라진다.”

개그우먼 조혜련. 그녀는 현재 ‘성공과 실패’ ‘인기와 소외’의 경계에 있었다. ‘경석아~’ ‘골름~’ 등 술한 유행어를 만든 인기 개그우먼이었지만 ‘기미가오 박수 파문’으로 한 순간에 ‘역적’이 된 그녀의 생각과 말에는 ‘상처’가 담겨 있어 듣는 사람들의 공감을 사기에 충분했다.

지난 22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열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강연자로 나선 개그우먼 조혜련은 어린시절 추억부터 털어놓았다. 아들이 귀한 집안의 다섯째 딸로 태어난 그녀의 삶은 순탄치 않았다.

막내 아들이 중심이었던 가정에서 그녀는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그녀는 “나도 모르게 남자한테 지기 싫

다 어떻게든 성공해야 하고 남들 눈에 띄어야 한다는 생각이 나를 짓눌렀다”면서 “내 삶 전체가 ‘죽으라고 하는 것’이 된 이유도 어린 시절의 피해의식 때문이다”고 소개했다.

어린 시절의 상처는 그녀가 평생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 주기에 충분했고, 이는 개그우먼이 되는 과정에도 잘 묻어 있었다.

그녀는 “김국진씨하고 함께 듀엣으로 방송국 시험을 봤는데 나만 떨어졌다”면서 “당시 한국 사회가 나의 개그를 받아 들일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후 그녀의 삶도 특이했다. 그녀는 수원의 유명 과장 공장에서 7개월 동안 일을 하며 학비를 벌었고, 대학을 마칠 수 있었다.

이런 고단한 삶이 개그우먼 조혜련을 만들었고, 잠시도 쉬지 않고 노력하는 열정의 기반이 됐다. 그녀는 어느 날 일본에서 활

동하고 싶다는 생각에 하루에 3시간씩 일본어 공부를 했다고 한다. 일본어 단어 100여 개를 적은 메모지를 늘 가지고 다니면서 이를 외웠고, 머릿속에 담기지 않는 단어는 모자와 손바닥 등에 써서 암기했다.

일본에서의 삶도 만만하지 않았다. 7년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어렵게 방송 생활을 하던 그녀는 어느 날 밤 일본에서 딸에게서 걸려 온 한 통의 전화를 받는다.

그녀는 “아픈 딸이 ‘엄마 나 아파, 엄마가 와서 참 좀 닦아줘, 엄마는 일본이 그렇게 중요해 나보다 중요해’라고 말할 때 일본 활동을 그만뒀어 했는데 내 욕심 탓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이후 그녀는 한 일본 방송에서 출연자가 기미가오를 부를 때 무슨 노래인지 모른 채 손뼉을 쳐 한국 네티즌들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그녀는 “이후 죽을 정도의 고통을 느꼈고, 성공이라는 것이 부질 없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후 그녀는 중국어 공부에 매달렸고, 현재는 중국어 강습을 하며 살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시 희망의 끈을 붙잡을 수 있었던 과정에 대해 그녀는 데이비드 호킨스의 저서 ‘의식혁명’에 등장하는 ‘의식 수준을 높이



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식 수준의 향상을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생활습관을 제안했다. 그녀는 “우선 책을 읽고 음악을 들어야 한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동네 도서관

에서 책을 읽어야 하고, 두 번째는 산책을 하며 사색을 해야 한다”면서 “마지막으로 자신과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개그우먼 조혜련씨가 지난 22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열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에서 강연하고 있다.

/최혜배기자 choi@kwangju.co.kr

## 을로우수 사랑봉사회 월산동서 연탄나눔 봉사활동



을로우수 사랑봉사회(회장 이병철)는 23일 광주시 남구 월산동에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최창수 을로우수 대표사원과 사랑봉사회 회원 등 40여명이 참여해 독거노인가정 10가구에 연탄 2000장을 배달했다. <광주시 남구자원봉사센터 제공>

## 광주 용봉초, 학교 텃밭 배추로 김장해 독거노인에 전달



광주 용봉초등학교(교장 김도수)는 23일 학생과 학부모 등이 함께하는 ‘바른 식생활체협의 날’ 행사를 열고 학교 텃밭에서 직접 재배한 농작물을 이용해 김장을 담가 신안동 독거노인 가정 등에 전달했다. <용봉초 제공>

## “안포 피조개 초밥·송호 전복술밥 건강한 맛에 반했어요”

<여수> <해남>

###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싱싱장터서 선배 내달 7일 가매초밥·롯데백 등서도 판매

“안포 피조개 초밥은 피조개의 쫄깃한 식감이 그대로 살아 있는 것 같고, 송호 전복술밥은 전복의 고소함이 잡곡과 어우러지면서 건강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3일 열린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의 싱싱장터에서 첫 선을 보인 여수 안포 피조개 초밥과 해남 송호 전복술밥에 대해 김용덕 KT&G 전남본부장은 호평을 계속했다.

김 본부장은 “피조개 초밥의 경우 고급 음식인데다 어느새도 찾아볼 수 없는 메뉴였다는 점에서 독특했다”며 “전복술밥은 저렴한 가격에 맛까지 충족시켜주는 음식”이라고 추켜세웠다.

해남 송호어촌계와 1사1촌 협약을 체결한 KT&G 전남본부의 임직원 20여 명은 이날 광주시 서구 농성동 가매일식 본점

등 3곳에서 열린 싱싱장터에 참여해 직접 요리를 맛보며 큰 관심을 보였다. 여수 안포어촌계와 1사1촌 협약을 맺은 광주도시공사 임직원 10여명도 함께 했다. <사진>

이들 메뉴를 개발한 ‘초밥의 달인’ 안우성(46) 광주대 호텔외식조리학과 교수는 앞으로 이를 정식메뉴로 판매할 예정이다. 안 교수는 “안포 피조개, 송호 전복의 직거래를 통해 어민들의 소득을 높여주고, 시민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선보일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기환 해남 송호어촌계장은 “해남 송호 전복이 광주시민들에게 맛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싱싱장터와 같은 교류를 계속 늘려가 송호 전복이 전국에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싱싱장터는 오는 12월 7일 점심시간(오전 11시30분~오후 1시30분)에 가매일식 본점과 광주시 동구 가매초밥, 롯데백화점 내 가매야 등에서 열린다. 싱싱장터에서는 안포 피조개 초밥과 송호 전복 술밥을 각각 1만원에 맛볼 수 있다. 이날 싱싱장터를 개최한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 개

## 위기가구 세심한 지원 목포시공무원 ‘감동’ 동명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사 임미정·나국대씨 등

최근 목포시 홈페이지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지역 주민에게 친절을 베풀 공무원들이 소개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동명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사 임미정, 나국대씨와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그 주인공.

목포에서 태어나서 서울생활 10년 만에 돌아와 할 조카 2명과 뽕소니를 담당한 아버지를 위해 목포에 내려오게 됐다는 박지영씨

는 “미혼인 자신이 조카들을 서류상으로 정리하는 문제 등을 장애를 가진 오빠 대신 일을 처리하고 가족을 지켜나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며 고충을 털어놓았다.

조카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그가 동명동 주민센터를 찾았을 때 “자신이 조카들의 부모가 아니기에 알지 못하고 농담 수 있는 부분들, 즉 배우처 신청, 급식지



임미정씨 나국대씨

까지 준비해주고 업무가 끝나는 시간까지 직원 분들이 남아 처리해 줬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복지과 담당자분이 먼저 전화를 걸어오 오빠가 장애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을 꼼꼼히 챙겨주고 조카들의 언어치료 배우처 신청도 신속하게 처리해 주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주변 분들의 사랑 덕분에 용기도 얻고 희망도 얻었다. 임미정, 나국대 사회복지 담당자 분들에게 그저 감사할 뿐”이라며 두 조카 잘 키워내겠다는 다짐의 글을 남겼다. /목포=고규석기자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 화측

- ▲이석희·최영옥씨 장남 재광군 정현석·김영순씨 차녀 유진양=26일(토) 낮 12시 데일리웨딩컨벤션 3층 비스타홀.
- ▲김동복(NH농협은행 동광주지점장)·문영숙(담양농협 상무)씨 장남 경도군 김광호·김향옥씨 장녀 규리양=26일(토) 낮 12시 광주시 광산구 아름다운컨벤션 2층 베르사체홀.
- ▲최윤락(성운산업 이사)·서준순씨 차남 훈근 박우영(㈜송죽 이사)·임은정(갤러리플라워 대표)씨 장녀 주현양=26일(토) 오전 11시 50분 광주시 서구 농성동 라페스타웨딩홀 2층 엘루체홀.
- ▲김윤삼·김금옥씨 장남 경남군 박형석·남숙희씨 장녀 지현양=12월3일(토) 낮 12시40분 한국교직원공제회 3층.

### 동문회

- ▲해남 옥천중(2회) 천우회(회장 김동수) 송년 연합모임=12월 3일(토) 오후 5시 광주시 서구 매월동 매월동화로구이

- 062-374-8592.
- ▲송원고 총동문회(회장 박찬갑) 이취임식 및 송년의 밤=12월 3일(토) 오후 6시 광주시 서구 마북동 라비앙웨딩컨벤션 1층 문의 062-384-7447.
- ▲학교법인 유은학원(광주상고·광주여상·동성고·동성중·동성여중) 총동문회(회장 전주연) 2016년도 제4차 정기이사회 및 송년의 밤=12월 6일(화) 오후 6시 30분 광주시 서구 농성동 알펜시아웨딩컨벤션(구 갤리아아워딩홀) 문의 유은학원 총동문회 사무국 062-361-2680.

### 종친회

- ▲진주강씨 통계공 광주전남 총회(회장 강기술) 정기총회=25일(금) 오전 11시30분 종회관 4층 회의실 062-228-3368.

### 향우회

- ▲재광 나주향우회(회장 김보근) 이사회 및 사무실 개소식=25일(금) 광주시 서구 매월2로53(공구 8동 204호) 문의 062-

- 603-2795.
- 알림**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한국실버복지회 생활법률 무료 상담=내용증명, 고소장, 호적정리, 가정 고민, 실버 결혼, 이발, 주례 서주기, 묘자리 바꾸기 등(실버에 한함) 062-365-8228.
-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062-652-1366, 062-434-1366 www.gene-korea.com.
-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음주와 우울, 불안, 스트레스, 치매, 인터넷 등 무료 상담, 열린마음상담센터(오지·두암·무등·우산·각화)에서 매주 월·금 오후 2시~6시까지, 문의 062-526-3370.
-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주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족 및 위기 청소년 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

- 원, 각종 체험활동,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모 상담, 입양상담 24시간, 무료 숙식보호 및 안전한 분만지원,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취업지원 및 학원비 지원 062-232-2043.
- ▲사랑애돌봄사업단 장애아동 행동보조, 인지능력향상, 무료간병사 파견사업

=서구 구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 모집

-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 감독 010-9092-0343.
- ▲걸라잡이 프로그램 회원=(배이비 마사지, 요리만들기, 육아용품 만들기, 육아상식교육, 자조모임 등), 결혼이주여성 한글교실(초·중급반 한국어 교육) 회원 모집 062-267-3700.
- ▲성모사랑 노인방문요양 센터 회원=고령, 노인성질환(치매·중풍·노환), 취사, 청소 가지지원, 신체활동지원 방문목욕, 기타 돌봄서비스 등 대상자 및 요양보호사 모집. 야간 및 휴일 상담 가능 062-385-3678.
- ▲충만재복지센터 회원=방문요양·방문목욕·복지응구상담·노인복지상담 일반가족 회원가입 상담 062-942-9982.

### 부음

- ▲박순애씨 별세 김경주·홍주·철주·용주·성주·해옥·민선·혜영씨 모친상 장미옥·박명희·양안숙·한민나·김순희씨 시모상 장경창·심수식·이준환씨 빙모상=발인 24일(목)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231-8901.

<b>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b>	
402호 故한성덕 님(남/77세)	101호 故김관수 님(남/83세)
子/子婦 : 한재민/김현자, 재민/이태희, 재정/성선희 女/婿 : 한지영/이석중 未亡人 : 최현심 *발 인 : 11월 25일 *장 지 : 화산동복 선영	子/子婦 : 김정진/이수희, 태진/장영숙 女/婿 : 김경희/박계수 未亡人 : 오정순 *발 인 : 11월 25일 *장 지 : 나주복합 선영
102호 故장재숙 님(여/55세)	
子/子婦 : 박정민/김성은, 대흥 *발 인 : 11월 25일	夫/妻 : 박태식 *장 지 : 영락공원 *연락처 : 227-4385
마음까지 편한 <b>孝 金호장례식장</b> 대표이사 구 제길	
문의 (062)227-4000 http://www.mykumho.com	